

비누를 위하여

손이 닿기 전 비누는
제 살이 얼마나 깎여 나갈지
알지 못하고

심장이 조일 때마다 푸른 거품을 물고
때가 타기 무섭게
춤을 추듯
뱀의 허물들을 사르르 벗겨낸다

작아지는 일에 능숙한 그는
구태여 몸집을 불릴 필요가 없다
온갖 더러움을 마주하며
녹아 사라지는 일에 몰두한 뒤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파아란 빛깔의 향기

오랜 시간 흐르는 물에
씻겨 나가는 것들을 들여다 볼 때마다
열이 오른 비누는
끝내 자신의 몸을 딱 하니 열어젖힐 참이다

아아 온몸을 던져야 피어난다는 연꽃처럼
제 한 몸 바스러진 꽃잎들이
뜨거운 노래를 부른다
눈이 부시도록 파란 새벽을 기다리며
비누를 위하여